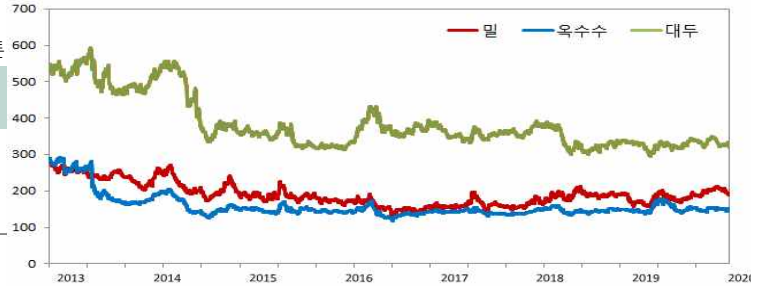


옥수수 선물가격, 염가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20.03.10)	전일대비	전월평균 (*20.02)	2019 평균
밀	191.89	▲0.7%	202	182
옥수수	148.62	▲1.3%	149	152
대두	321.96	▲0.7%	326	328

단위 : US\$/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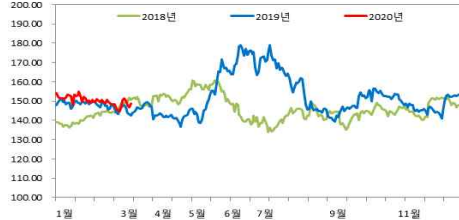
주1.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 (밀 : 5월, 옥수수 : 5월, 대두 : 5월물) 정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7% 상승했다. 밀 선물가격은 고르지 못한 세션에 뒤이어 늦은 기술 움직임으로 반등하여 상승 마감했다. 세계 현금 밀 가격의 최근 약세가 시장을 강타하여 랠리로 이끌었다. 러시아 밀 수출가격은 지난 6주 연속 세계 기준거래가격과 루블의 급락에 따라 하락했다. 월간 수급 보고서에 따르면, 미 농무부는 2019/20년 마케팅 연도 말에 세계 밀 재고량을 2억 8,714만 톤으로 평균 무역기대치보다 낮고 2월의 2억 8,803만 톤에서 감소했다. 농무부는 미국의 2019/20년 밀 기말재고량 전망을 940만 부셸로 동결했다. 호주의 동부의 밀밭 농부들은 3년 동안 이어져 온 기쁨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으로 겨울철 작물 파종을 시작하기 위해 몇 주부터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거래소 옥수수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3% 상승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미국 증시와 원유 OIL 선물 가격의 반등에 따른 3세션 하락과 유출 강세 이후 염가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들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움직이면서 석유 및 세계 주식시장은 전날의 급락에서 회복되었다. 미 농무부는 월별 수급보고서를 통해 2019/20년 마케팅 연도 말 미국의 옥수수 재고 전망치를 18억 9,200만 부셸로 변경하지 않았다. 또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옥수수 생산량 추정치를 각각 5천만 톤과 1억 1천만 톤으로 변경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에서 앞으로 며칠 동안 예상되는 강우량은 최근 고온과 건조한 기후로 타격을 받고 있는 중부 농업 지역의 대두 및 옥수수 작물에 도움을 줄 것이다.

대두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7% 상승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코로나바이러스 발발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하루 만에 금융시장이 회복되는 데 일조하면서 화요일 4개 세션에서 처음으로 상승했다. 시카고에 있는 Futures International의 선임 애널리스트 Terry Reilly는 월간 보고서에서 미국 농무부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대한 콩 생산 전망치를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상향 조정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중 상당 부분은 단순히 투자 구매라고 생각한다. 펀더멘탈은 계속 광범위하게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동향

- 걸프 옥수수 및 대두 수출 프리미엄은 CME 선물의 판매와 손실에 대해 꾸준히 강세를 보였고, 약한 CIF 바지션의 운송 비용은 SRW 밀(Gulf) 베이스 입찰에 압력을 가했으며, 다른 밀은 대부분 변경되지 않았음.
- 10일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 협의 재개 가능성,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추진, 미국 세일 생산업체 지출 축소 등으로 상승.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237	▲0.9%	환율	원/달러	1,201.4	▲0.8%
	옥수수	174	▼0.6%		달러/유로	1.1427	▲0.5%
	대두	344	▼1.7%	국제유가	WTI	34.36	▲10.4%
	쌀	460	-		Dubai	34.18	▲4.0%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근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20.03.09(수출가격), '20.03.10(환율), '20.03.10(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